

격려사

(제34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

2022. 10. 28.(금) 13:30 / 생활문화센터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오늘 우리 완도군의 명예를 걸고 서른네번째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게 될 선수단 및 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결단식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대해 오신 선수단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 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완도군생활체육회 유병욱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선수들을 직접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강성운 부군수님, 조영식, 박재선,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 및 임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생활체육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의 의미를 넘어 지역을 하나로 묶는 지역공동체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화합을 이루게 하는 윤희유 역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지역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 생활체육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제신 생활체육인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의 활력을 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어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간 해남에서 열릴 이번 대축전에서 완도의 뜨거운 열정과 힘찬 기상을 널리 펼쳐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회기간 중 한분도 다치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